

2019 러시아 우수리스크 국제 가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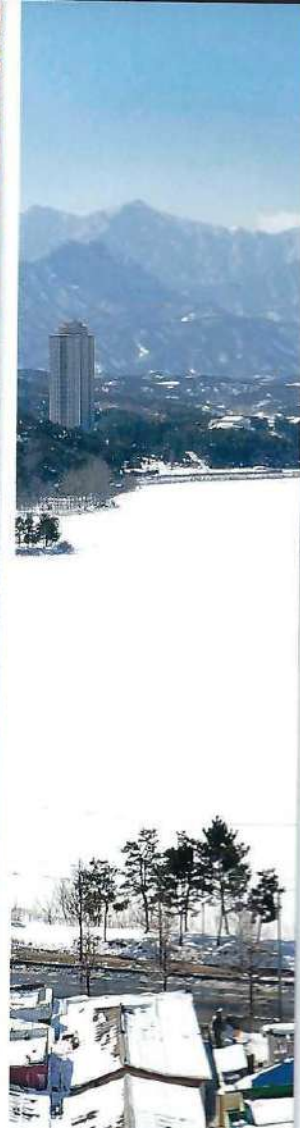


2019년 7월 13일(토) 오후 5시
러시아 우수리스크 군인극장

주최 :  속초예총

주관 : 속초예총 8개협회 (문인·미술·연극·음악·국악·사진작가·무용·연예예술)
러시아 우수리스크 고려인민족학교

후원 :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  강원도  속초시



속초의 사계 (四季)

사단법인 한국예총 속초지회

THE FEDERATION OF ARTIST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 KOREA, SOKCHO BRANCH

www.artsokcho.com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55(속초문화예술회관 내)

TEL. 033-631-8070/FAX. 033-632-8072

E-mail : art8070@hanmail.net

무더위가 시작하는 7월에 제2회 우수리스크 국제가요제라는 이름으로 속초시와 우수리스크시가 문화교류로 두 번째 만났습니다.

지난 5월 예선을 거쳐 16팀의 참가자들이 큰 포부로 관객 앞에 섰습니다. 우수리스크 시민뿐만 아니라 나호드카, 블라디보스토크, 볼소이까메니 등 거리가 먼 도시에서도 참가하여서 행사를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멋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김 발레리아님을 비롯한 우수리스크 고려인민족학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 봉 재

한국예총 속초지회 회장

작년 가요제로 출발한 문화교류가 올해는 본 행사와 함께 속초예술인들의 연극과 무용공연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물줄기가 강과 바다로 합쳐지는 것처럼 속초예총과 우수리스크 고려인민족학교가 시작한 작은 문화교류가 시간이 지나며 점점 질적·양적으로 커나갈 것입니다.

제2회 우수리스크 국제가요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신 우수리스크 시민 여러분들과, 이 행사를 준비하신 속초예총과 우수리스크 고려인 민족학교, 그리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강원도, 속초시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2019년 7월 13일

한국예총 속초지회 회장 정봉재

축 사



김 명 길

속초시의회 의원
전)한국예총 속초지회
부회장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는 오늘 제2회 우수리스크 국제가요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제강점기 연해주 항일투쟁 중심지였고 현재는 극동지역 고려인들의 삶의 중심지인 우수리스크에서 속초예총과 우수리스크 고려인민족학교 간 협업을 통해 이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연극과 무용 공연 등 작년 보다 문화예술교류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낯설었던 두 도시가 문화예술교류를 통해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었고, 이 고리를 통해 더욱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 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문화예술교류의 중요성이 다시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많은 각 단체들의 노력 부탁드립니다. 저도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13일

속초시의회 의원 김 명 길

Спасибо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нашего мероприятия. Но особенн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хочу выразить нашим гостям из города Сокч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ез которых не состоялось бы сегодняшнее мероприятие.

Искусство это такая же человеческая потребность, как еда. Оно существовало всегда, и будет жить вечно. Искусство ценно потому, что оно одухотворяет человека, наполняет его новыми красками жизни.

А народное искусство, является еще и хранителем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м носителем самобытной культуры, искусства предыдущих поколений, является важнейшим средством воспитания гармонично развитой личности, развития ее нравственной, трудовой, эстет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не знает своих корней, не любит свою родину, не гордится славой и культурой своих предков, не будет уважать традиции, культуру и национальные чувства другого народа.

Хочется выразить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каждый из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на наш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найдет, почувствует, обратит внимание на главное, на то, что ценно и важно, на то, что понятно и интересно, и тогда в его душе воцарится гармония.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в мир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Ким Валерия –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и языка



김 발레리아

우수리스크 고려인민족학교
회장

먼저, 이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속초예총에서 이 행사를 벌써 2년간 진행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이 행사를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술은 음식처럼 사람에게는 늘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술은 늘 존재했고 앞으로도 항상 있을 것입니다. 예술은 항상 가치가 있고 사람의 내면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전통예술은 역사를 잇고 역사를 지켜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예술을 조화롭게 키워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조국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자기 문화와 전통을 모르고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참석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무엇이 소중한고 가치 있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 음악 세계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수리스크 고려인민족학교 회장 김 발레리아



2019 러시아

우슬리스크국제가요제

속초예총 방문단



정봉재
한국예총 속초지회장
단장



김명길
속초시의회의원
전) 속초예총 부회장



양숙희
한국무용협회 속초지부장



남상진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장



신오일
속초축제위원회 운영위원장
사회



엄계록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속초지회장 / 심사 / 편곡



엄무림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속초지회 / 키보드



손현자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속초지회 / 피아노



엄무형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속초지회 / 드럼



음대식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속초지회 / 피아노



전일
한국예총 속초지회
국제교류위원 / 통역



이정무
한국예총 속초지회
사무국장

2019 러시아 우수리스크 국제 가요제



김 발레리아
우수리스크
고려인민족학교 회장



김 발렌진
우수리스크
고려인민족학교 관장



조 엘레나
우수리스크 고려인
민족학교 교육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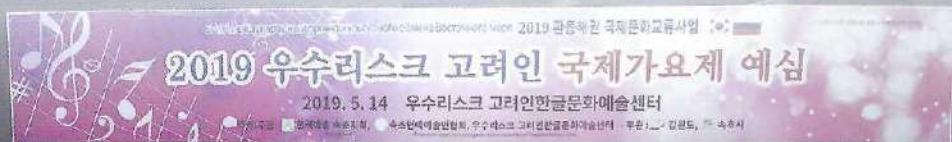
말르호 나제즈다
게오르기예브나
라두가 가무단 단장
볼쇼이 카멘시 의원



김 가 은
2019 러시아 우수리스크
국제가요제 사회자



2018 우수리스크 국제가요제 금상수상자의 앵콜공연 모습





2019
우수리스크국제가요제 출품자

①



이 엘레나
우수리스크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②



정 아나스디야
나호드카
충 맞은것처럼

③



헤가이 나팔리야
블라디보스톡
당신은 사랑받기위해
태어난사람

④



자이 마리나
나호드카
보여줄게

⑤



이 알렉세이
우수리스크
칠갑산

⑥



노인회관 우수리스크 날춤보소

⑦



문 그리스피나
우수리스크
저별

⑧



김 예가페리나
우수리스크
If I leave(Sumi Jo)

⑨



스크리프닉알라
우수리스크
Come back home

⑩



이비크도리아
우수리스크
나는 나비

2019
우수리스크국제가요제 출품자

⑪



체기로바 알드나이
우수리스크
전하지 못한 진심

⑫



브즈드하니코 폴리나
불쇼이 까메니
Solo

⑬



박 앨리나
우수리스크
보여줄게

⑭



김 앨라
우수리스크
어머니 노래

⑮



김아나스다시아
우수리스크
겨울아이

⑯



덴 예가떼리나
우수리스크
Stay



2018 우수리스크 국제가요제에서 금상수상한 반 알리나

제2회 우수리스크
국제가요제 시상내역

시상명	훈 격	수량	비 고
금 상	속초시장 상	1	상장 및 TV
은 상	속초시의회 의장 상	1	상장 및 냉장고
동 상	한국예총 속초지회장 상	1	상장 및 세탁기
특별상	한국예총 속초지회장 상	1	상장 및 화장품세트
인기상	속초연예예술협회장 상	2	상장 및 화장품세트
참가상	속초연예예술협회장 상	10	블루투스 마이크
	전참가자		축구공
	관객 추천 경품		화장품세트 8, 축구공 34

총 16팀

2019 러시아 우수리스크 국제 가요제 축하드립니다.

이 행사를 위해 도움을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속초문화원	원장 김계남
W 펜션	사장 박성균
속초부동산	사장 임명식
속초시축구협회	회장 박충근
김봉수외과의원	원장 김봉수
전 속초시보건소	소장 박기식

Выступление корейских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제작 출연



양숙희
한국무용협회
속초지부장



조성희
한국무용협회
속초부지부장



권현주
양숙희무용단



배수진
양숙희무용단



정승진
양숙희무용단



김문성
양숙희무용단



권혜재
양숙희무용단



최 빛
양숙희무용단



박가운
양숙희무용단



권오돈
한국무용협회
속초지부
사무국장

Спектакль «26 июня» 연극 '6월26일' 제작 출연



남상진
지부장



신오일
스텝지원



김일태
무대감독



장태준
작/연출



김강석
총예술감독



박동일
영상감독



김영주
조연출/음향



이후림
조명디자이너



김수진
장순년 역



윤국중
진연준 역



Выступление корейских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한국무용 · 팝핀 공연

12 июня 2019 год
ДК «Юность» в 17:00

Организаторы –  Федерация искусств и культур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и-Городская ветка Сокчо,
Центр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и языка города Уссурийска

Спонсоры –  Генераль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 Владивостоке /
 провинция Канвон до /  г. Сокчо /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Ян Сук Хи»

Спектакль «26 ИЮНЯ»

윤국중

김수진

Краткое содержание

1938 год. Тюрьма. Место, где встречаются два парня Сун Нен и Ен Чун. Пообщавшись, они выясняют, что оба являются выходцами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По разным причинам попав в японскую армию, они воюют в Манчжурии, где их берут в плен советск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Здесь их призывают на войну, и в битве за Москву их берут в плен немцы и отправляют в концлагерь. Переживших жестокое и мучительное время, будучи приговоренных к смерти, в июне 1944 года их призывают в немецкую армию. В битве за Нормандию попадают в плен армии США.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ойны, в 1950 году, их отправляют на Корейскую войну.

SOKCHO

www.sokcho.gangwon.kr

나를
설레게하는
도시

속초

ГОРЫ, МОРЕ, ОЗЕРА и ГОРЯЧИЕ ИСТОЧНИКИ
— прекрасного города СОКЧО

속초시



Выступление корейских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12 июня 2019 год
ДК «Юность» в 17:00

Организаторы –  Федерация искусств и культур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и-Городская ветка Сокчо,
Центр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и языка города Уссурийска

Спонсоры –  Генераль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 Владивостоке /
 провинция Канвон до /  г. Сокчо /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Ян Сук Хи»

제작 출연



양숙희
한국무용협회
속초지부장



조성희
한국무용협회
속초부지부장



권현주
양숙희무용단



배수진
양숙희무용단



정승진
양숙희무용단



김문성
양숙희무용단



권혁재
양숙희무용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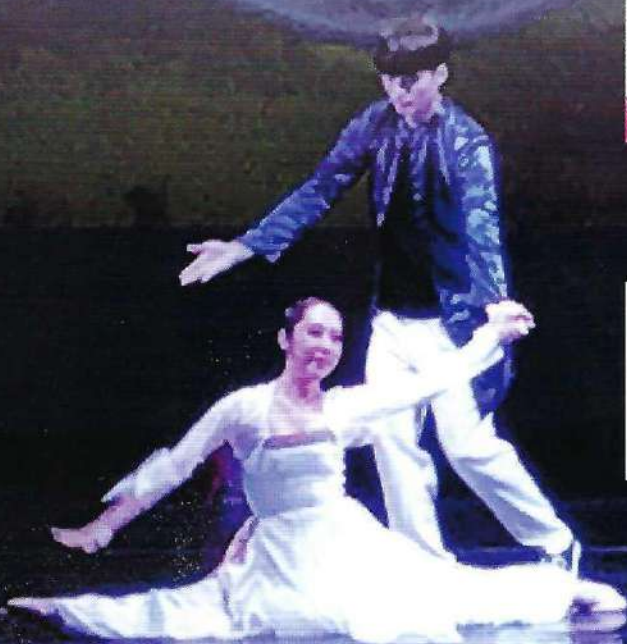
최 빛
양숙희무용단



박기윤
양숙희무용단



권오돈
한국무용협회
속초사무국장



Спектакль «26 ИЮНЯ»

윤국중

김수진

Краткое содержание

1938 год. Тюрьма. Место, где встречаются два парня Сун Нен и Ен Чун. Пообщавшись, они выясняют, что оба являются выходцами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По разным причинам попав в японскую армию, они воюют в Манчжурии, где их берут в плен советск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Здесь их призывают на войну, и в битве за Москву их берут в плен немцы и отправляют в концлагерь. Переживших жестокое и мучительное время, будучи приговоренных к смерти, в июне 1944 года их призывают в немецкую армию. В битве за Нормандию попадают в плен армии США.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ойны, в 1950 году, их отправляют на Корейскую войну.



남상진
지부장



김일태
부지부장



장대준
작/연출



김강석
총예술감독



박동일
영상감독



김영주
조연출/음향



이후림
조명디자이너



김수진
장순년 역



윤국중
진연춘 역



신오일
연극협회 고문

Главный герой спектакля в августе 1939 года, будучи заложником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вынужден был воевать на их стороне. Во время маньчжурского пограничного конфликта, он был схвачен советскими военнослужащими и был вынужден служить уже на стороне Красной Армии.

Позже, во врем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он был взят в плен немцами и стал участник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тлантического вала – мощнейшей линии обороны нацистов. А на высадке в Нормандии, он становится пленником армии США. Никто не мог понять, на каком языке он говорит.

В конечном счете,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он является корейцем. Историю своей непростой судьбы он поведал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й службе армии США.

Франция, Нормандия, берег Юта. 26 июня 1944 год

